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자원봉사자

美여성 에이즈 환자 증가 추세 - 에이즈 환자 5명당 1명

미국의 여성 에이즈 환자 수는 1986년 전체 에이즈 환자 20명 당 1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5명 당 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美질병통제예방센터의 산하 D. 헤이더 박사는 「미국의 학협회지널」, 3월7일자에 게재한 연구논문을 통해 “1986년 에이즈 환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했으나, 1999년 이 수치는 18%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헤이더 박사는 “일반적으로 HIV 관련 질병에 걸린 비율은 남성이나 여성이 비슷하지만 HIV에 감염된 여성들은 마약중독이나 우울증 등 다른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 에이즈 치료제인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인터넷, 3/9)

여성들, 혈중 HIV 수치 낮아도 에이즈 증세 가능성 높아 - 美연구

HIV 양성 여성들은 혈액 내 HIV 바이러스 양이 남성에 비해 적어도 에이즈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HIV에 걸린 여성들의 치료방법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존스 홉킨스대학의 공중보건전문 의 티모스 스텔링 박사는 “HIV 양성 반응이 나타난 남성 156명과 여성 46명을 대상으로 11년간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혈액 내 1밀리미터 당 HIV 바이러스 수가 7만8천개가 된 후 에이즈 증상을 나타낸 사람이 29명이나 된 반면, 여성들은 분자수가 1만7천개 밖에 되지 않는데도 에이즈 증상을

나타낸 사람이 15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 볼 때 바이러스 분자수가 권장치대로 혈액 1밀리미터당 2만개에 달할 때 에이즈 치료를 시작할 경우 남자 74%가 치료를 받았지만 여자들은 37%만 치료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인터넷, 3/12)

AIDS백신 원숭이실험 성공

미국 연구팀이 새로운 에이즈 백신을 개발해 원숭이 실험에서 성공을 거뒀다.

미국 에모리대 연구팀은 과학전문 사이언스 최신회에서 새로 개발한 2단 에이즈 백신을 원숭이에 접종한 결과 에이즈 예방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해리엇 로빈슨 박사는 원숭이 2마리에 새 에이즈 백신을 주사하고 4마리에는 가짜 백신을 주사한 뒤 에이즈 바이러스에 노출시키자 가짜 백신 맞은 원숭이 4마리는 모두 에이즈에 걸려 7달 안에 죽었지만 새 백신을 접종한 2마리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2단계 백신은 1단계 백신의 효능을 촉진하도록 천연두 백신에 HIV 단백질을 첨가한 것으로 연구팀은 곧 인체 임상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3/13)

남아공, 청소년 에이즈 환자 감소 추세 - 남아공 보건당국

남아공 10대들은 “안전한 섹스”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10대 청소년들의 에이즈 바이러스 (HIV) 보건자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남아공 보건장관이 밝혔다.



온두라스의 에이즈 고아들

현재 남아공에는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420만명이 에이즈 환자 또는 보균자이며 10년 내에 700만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할 것으로 보인다.

10대들은 콘돔을 더 널리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성관계의 위험을 더 많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대 소녀들은 아직도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보통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과의 관계로 감염된다. (로이터인터넷, 3/13)

스트레스나 분노가 에이즈 환자의 면역체계 저하시켜

HIV 감염 환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적대감, 사회적 고립 등이 항-레트로바이러스(HIV 를 비롯한 RNA 바이러스)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에이즈 증상을 더욱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먼 박사는 9년간 96명의 HIV 양성 남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준이 높고 주위의 지원도 별로 못 받은 환자들에게서 에이즈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레저먼 박사는 의사들이 HIV 환자의 스트레스나 사회적 문제의 징후 등을 잘 살펴야 하며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적절한 심리·사회 치료를 받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3/15)

HIV 치료 시 치료제에 대한 바이러스의 내성 테스트 필요 - 美 연구진

에이즈 바이러스(HIV)를 치료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이러스가 치료제에 대해 내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로운 치료제를 투여하기 전에 바이러스의 내성 유무를 먼저 테스트할 경우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치료 비용 면에서도 오히려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로이터인터넷, 3/21)

美에일대 프리소프 박사 에이즈 치료제 특허수입 포기

에이즈 치료제 개발자가 가난한 환자를 위해 약값을 낮추도록 함으로써 연간 수백만달러의 특허 수입을 포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 에일대 명예교수 윌리엄 프리소프 박사의 이 같은 선행을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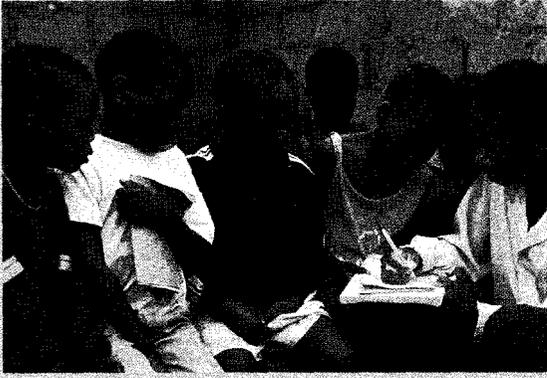
프리소프 박사가 개발한 '스타부딘'은 미 식품의약국(FDA)의 최종 승인을 받은 15종의 에이즈 치료제 가운데 하나다. 아프리카 등지의 가난한 에이즈 환자가 구입하기에는 약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온 프리소프 박사는 그 동안 이 약품의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다국적 제약업체 브리스톨 마이어 스콧(BMS)을 설득해왔다.

프리소프 박사의 주장에 감동한 BMS는 내달부터 스타부딘의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프리소프 박사는 "스타부딘 가격 인하로 개인 수입이 줄겠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서 "2600만명에 이르는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그 저 즐거울 뿐"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3/29)

동성애 여성, 마약 주사 시 다른 여성보다 HIV 감염 위험 높아

똑같이 마약 주사를 사용할 경우 동성애 여성들은 비동성애 여성에 비해 HIV에 감염될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뉴욕 국립개발연구소 에이즈 연구소의 사무엘 프리드먼은 로이터에 "미국에서 마약 주사를 사용하는 동성애 여성 비율은 마약 주사 사용 전체 여성 중 25%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짐비아 투시키 무상교육을 받고있는 에이즈 고아들



에이즈환자의 장례식

이번 연구는 볼티모어, 로스앤젤레스, 뉴욕시(할렘과 로어 이스트 사이드), 뉴올리언즈, 시카고에 거주하는 18~30세 마약 주사 사용 여성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HIV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심 지역에서 "여성 동성애자들은 일반 여성들에 비해 HIV에 감염될 확률이 더욱 높다"고 프리드먼은 밝혔다. (로이터인터넷, 4/13)

정맥주사 마약 사용자들, HIV 감염 줄어 - WHO 연구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서 진행중인 조사 결과 뉴욕과 브라질에서 정맥주사 마약 사용자들의 HIV 감염 비율이 떨어지고 있음이 알려졌다.

뉴욕에 있는 베스 이스라엘 병원의 돈 데스 잘레스 박사는 뉴욕에는 서유럽의 어떤 대도시보다도 많은 에이즈 환자가 있지만 HIV에 감염된 정맥주사 마약 사용자들의 비율은 1차 조사 때의 50%에서 20%로 줄었으며 신규 감염률도 연간 4%에서 1%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잘레스 박사는 20%도 "반아들일 수 없도록 엄청난 숫자"라고 지적했다.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피오쿠루즈 에이즈 프로그램의 프란시스코 이나시오 바스토스 박사가 밝혔다.

잘레스 박사는 또한 마약사용자들에게 깨끗한 바늘을 공급해 주는 '바늘 교환 프로그램'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인터넷, 4/21)

제약사 특허침해소송 철회 - 아프리카 빈국 에이즈 환자에게 복음

세계 유명 제약 회사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상대로 한 에이즈(AIDS) 치료제 특허권 소송을 철회,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에이즈 환자들이 값싼 치료제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등 39개 제약 회사들은 19일 1997년 남아공 정부가 국제적으로 특허를 받은 에이즈 치료제 대신 상표 등록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 값싼 치료제를 수입, 제조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제기했던 소송을 철회했다.

이는 소송제기 후 기업 이익을 위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에이즈 환자들의 생명을 도외시한다는 개도국들과 국제기구 및 인권 단체들의 비난 여론에 막강한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굴복한 것으로 '꼴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로 비견되고 있다. (한국일보, 4/20)

에이즈 확산 방지위해 글로벌 펀드 조성하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에이즈 치료 및 확산 방지에 사용될 글로벌펀드를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경제전문 통신사인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아난 사무총장이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서 열린 아프리카대륙 정상회담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난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현 유엔예산 이외에 매년 70~100억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4/26)

아프리카 에이즈 정상회담

아프리카 사상 최대규모의 에이즈 정상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개막됐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을 포함해 50 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날까지 열리는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는 에이즈퇴치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에이즈 퇴치를 위한 자금 모금과 보건체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4/27)

에이즈약 복합처방으로 수직감염 예방 가능 - 부작용이 해결 과제

두 가지 에이즈 약을 복합 치료했을 경우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라도 100명 중 99명 가까이는 HIV에 감염되지 않았고 최근 프랑스 연구진이 밝혔다.

이번 연구에 쓰인 약품은 항에이즈 치료제인 지도부딘(zidovudine)과 래미부딘(lamivudine)으로, 프랑스 파리의 코신 병원 의료진들이 이 약품들을 에이즈에 감염된 437명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결과 이들이 낳은 아기가 에이즈에 감염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이는 지오부딘만을 썼을 경우 산모에서 아기로 에이즈가 전염되는 수직감염 확률이 2/3으로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효과 면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지오부딘과 래미부딘을 동시에 썼을 때 래미부딘에 대한 내성이 생겨 에이즈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변종이 생기기도 했으며, 일부 아기에게서는 비정상적 혈액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19개월간의 연구기간 중 태어난 452명의 아기 중 절반 이상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대부분은 백혈구가 심각할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혈액 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빈혈 증세를 보였다.

또 수직감염되지 않은 아기들 중 2명은 신경성 합병증으로 숨졌다. 연구들 이끈 로렌 만네브로 연구원은 “신경 합병증의 경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항에이즈 치료약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부작용까지 완전히 제거할 경우 지도부딘과 래미부딘 복합 처방으로 에이즈 감염 산모들을 치료

함으로써 HIV가 태아에게 수직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했다. (로이터인터넷, 5/7)

영국내 에이즈 치료제 내성 높아져 - 쫓연구

영국에서 HIV 치료제 내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의료인들은 안전한 섹스를 촉진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4일(현지시간) 촉구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AIDS 바이러스인 HIV 바이러스 감염자의 약 25~27%가 1개 이상의 에이즈 치료제에 내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내 전염병 실태를 관찰하는 영국 공중보건연구소(PHLS)의 시몬 그레거는 “에이즈 치료제에 어느 정도 내성을 보이는 신규 감염 환자의 비율이 증가했다”며 “이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HIV 치료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병을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치료제 선택의 범위도 줄어들 수 있다.

항생제와 마찬가지로 에이즈 치료제도 약물을 남용하거나 처방전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성이 생기게 된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영국내 HIV 치료제 내성 현황을 파악하는 단체에 소속된 과학자들은 “모든 인구 집단에서 보다 안전한 성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로이터인터넷, 5/7)

미국, 유엔 글로벌 헬스 펀드에 올해 2억달러 기부할 것

미국 정부가 전세계 보건과 관련된 글로벌 펀드에 2억달러를 기부한다는 내용을 오는 11일 (이하 현지시간) 발표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이 이 펀드에 내년에는 5억달러 이상을 기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로벌 펀드는 에이즈나 결핵, 말라리아 등의 퇴치를 위해 지난해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이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아난 총장은 이 같은 대규모 펀드를 위해 총 70억달러에서 100억달러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정부들과 세계 유수 기업들의 도움을 촉구한 바 있다. (로이터인터넷, 5/10)